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슬프고 억울하다 우리 대한 동포여! 우리가 오천년 문명의 역사를 가진 이천만 신성한 민족으로 삼천리 강토를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지킬 만하건만 저 일본이 침략적 야심을 가지고 국제 사회의 법규와 도리를 무시하며 일본의 세력에 아부하고 조국의 흥망과 이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역적 놈들과 힘을 합쳐서 온갖 압박의 수단을 총동원하여 형식에 불과한 합방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켰다.

우리 이천만 형제 자매는 그 이후 온갖 음험하고 모진 정치 아래에서 노예와 희생양이 되어 오랜 세월 씻지 못할 수치와 모욕을 받아왔다. 모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스스로 멸망할 함정에 갇혀서 하루가 마치 일 년과도 같은 지겨운 세월을 살아 온지 이미 십 여 년이나 지났다. 그동안 겪은 무한한 고통은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오직 우리 동포들의 마음 속에 품은 비수만이 말해줄 것이다.

평범한 아낙네라도 한을 품으면 오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였다. 하물며 수천만 백성들이 한꺼번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애처롭게 호소하는데,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어찌 굽어 살피주시지 않겠는가?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유럽의 대전란이 끝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민본주의에 입각하여 평화를 주창하고 있는 오늘날을 맞이하여 감사하게도 남자 사회에서는 나라 곳곳에서 독립을 선언하였다. 독립 만세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여태껏 매서운 겨울이었던 한반도 강산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이제 만물이 다시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모든 용기와 힘을 다 기울였더라도 아무쪼록 조금만 더 용기와 힘을 발휘하시고, 열렬한 정성을 다 바쳤더라도 아무쪼록 조금만 더 열렬한 정성을 바치시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이라도 변함이 없기만을 피 끓는 정성으로 기도하는 바이다.

우리가 비록 집안에 들어앉아 살림만 하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고 신체가 연약한 아녀자 무리이지만 대한의 국민인 것은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양심도 남자들과 다를 바 없다. 용기와 힘이 뛰어나며 지식이 고명한 영웅과 호걸들 가운데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억울하게 이 세상을 마친 사람이 매우 많지만 우리와 같이 지극히 사리에 어두운 평범한 아낙네일 지라도 정성과 노력을 모두 기울인다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은 매우 분명한 하늘의 이치인 것이다.

우리 여자 사회에서도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후손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품격을 갖춘 현명한 분이 매우 많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본받을만한 선생님을 들어서 말하라고 한다면 서양의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았던 사리라고 하는 부인을 들 수 있다. 이 부인은 농가에서 태어났는데 아들 여덟 명을 낳아서 모두 국가에 바쳤다.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승전을 하였